

투데이 칼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하나다

아 직까지도 몇몇 지지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동학 농민혁명(이하 '혁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상지(發祥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발상지는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이나 현상이 처음 나타난 장소를 의미한다.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발상지는 틀, 셋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의 시작인 사건 또한 하나여야 당연하다.

그렇다면 혁명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 또한 발상지 뜻에서 '큰'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큰 가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높은 시대정신이다. 혁명에 있어 시대의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지평이도 밝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 어느 지역주민, 어떤 종교단체가 억압과 압박을 받을 때 분능적인 항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타지역민, 타인의 역할



전민중  
고청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함과 이름을 내 일 같이 생각하여 대항하는 것은 공동체 상생 정신이 내재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실제 고창 무장기포후 지역 주민 4,000여명은 정봉준,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무장음성과 고창음성이 아닌 고부성을 첫 번째로 공격한다.

둘째, 정체성 선언이다. 모임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체성을 논리 정연하게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물러들었다 하여 한 순간에 모임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창

무장기포후에는 혁명의 성격과 의의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셋째, 완전한 독립이다. 혁명은 숙명적으로 현 체제에 반기를 든 비합법적 저항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저항이 일어나면 조선 조정의 화유와 설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설득 당했다는 것은 현 기득권 체제의 규범을 준수한 결과가 되어 결론적으로 혁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보은집회와 고부봉기는 조선 정부의 화유와 설득에 해산해 버린다.

일부 사람들은 보은집회 또는 고부봉기가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발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초는 단초로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들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선운사 미륵석불비기 탈취사건이 동학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조선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역원을 발현시켜 뒤 이은 사건들의 단초를 제공했다 하여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어떤 사건이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연속성과 함께 이 사건이 포함될 경우 혁명 참여자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나 아니면 격하되느냐에 달려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도 혁명의 시작점으로 1894년 3월 무장기포를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혁명의 발상지는 무장기포지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해에는 소모적 발상지 논쟁에서 벗어나 인류의 상생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황타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확실히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시아 중도 범죄 그만”



18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의 붉은 계단에서 열린 지하철 인종차별 범죄 희생자인 미셀 고를 추모하는 집회에 참석한 한 남성이 “아시아 중도 범죄 그만”이라고 쓰인 마스크를 쓰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인 미셀 고는 지난 15일 오전 타임스퀘어 지하철 플랫폼에서 죽은 노숙인 사이먼 미셀(61)에 떠밀려 추락해 열차에 치어 숨졌다.

페루 해변 기름 유출, 실태 보여주는 시민



통가 해저 화산 폭발 여파로 기름이 유출된 페루 카야오 벤타니아의 카베로 해변에서 18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기름으로 뒤덮인 손을 보여주고 있다. 페루 민방위 연구소는 태평양 연안의 라 팔피아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싣던 유조선이 1만 km 떨어진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배가 흔들리며 기름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사설

금리 인상 가속화 문제

금리 인상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대출 7%, 신용대출 8%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러면서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다. 이는 빚진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이야기다. 6~7%대 은행 대출 이자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출 금리 상승에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이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점에서 국제금리 추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민간 이자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한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로 올렸다.

그리고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만기별 국채 이자가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분예산 가운데 국제이자 상환을 위해 21조4673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10조 원가량 추가 국제 발행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반면 금리가 오르고 유동량을 축소할 경우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고,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긴축 정책도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월 3.2%, 11월 3.8%, 12월 3.7%로 4%에 육박했다. 문제는 무려 1.845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다. 이미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정일 사망 10주기와 대북 제재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를 맞았다. 북한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의미도 함께 부각했다.

‘수령 김정일’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으로 코로나와 제재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중앙추모대회에는 두 달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주석단에 등장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추모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했다.

북한 곳곳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 업적을 회고하며 충성을 다지는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북한 최대 규모의 미술박물관에도 김정일 위원장을 위상화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다.

백두산에 오른 김정일 위원장 모습을 통해 위인적인 풍모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도 김정일 위원장 10

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 선전했다.

중국 측에선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는 북중 밀착 행보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업적도 함께 칭송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았다. 미 재무부는 국제 인권 날인 지난 10일 북한의 중앙감찰소를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2016년 북한 여행 도중 체포됐다가 17개월 만에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웬비어를 예로 들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는 물론 대북제재의 반쯤까지 동시에 잡아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은 미국 내 자선이 동결되고 미국 측 개인이나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코로나 백신까지 거부하며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북한이 과연 대외 테이블로 복귀할지가 관심사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